

# 부모-자녀 놀이치료 참여에 관한 질적 연구

## -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

### Qualitative Study on Participating in Filial therapy

#### - focusing mothers' perspective-

김숙경\*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Kim, Sook Kyung\*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mothers' experiences in filial therapy and to investigate them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For these purposes, three mothers were observed in a filial therapy process from a counselor and researcher perspective from December 2009 to April 23, 2010. After the program, mothers were interviewed and video tape were used in order to a better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Their experiences were analyzed in a format of experience with time, space, relation, and body, and interpreted their meaning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e follows: Mothers have failed to put a priority on making time for a special play session.; They also had conflicts when they were unable to handle new skills.; They failed to make proper responses; They failed to internalize the space itself; The first intense emotion they felt in a play session was 'awkward.'; They learned what kind of person they were by using new skills through the body.; The method of how mothers formed a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revealed itself in play. The meanings of participation in filial therapy can be discussed from two perspectives; 'becoming an observer' and 'taking care of'

**Keywords:** filial therapy, qualitative study,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 I. 서론

아동상담에 참여하는 주체는 아동, 상담자, 그리고 부모이다. 성인상담과는 다른 점이 바로 부모가 상담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부모는 상담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동의 변화를 위해 상담자와 함께 치료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과 자신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문화적 배경이나 아동상담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부모의 역할은 달라진다(최명선, 김광웅, 2005). 어떤 문화에서는 상담에 참여하는 부모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부모가 내담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기도 한다. 그러한 아동상담 과정에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전에 이미 부모는 상담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상처를 받을

---

\* Corresponding author: Kim, Sook Kyung

Tel: 02- 6335-6509

Email: francisca13@naver.com

수 있고(McGuire & McGuire, 2001),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데서 부모로서의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Bratton & Landreth, 200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문화의 경우, 아직까지 부모가 아이와 함께 상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가 상담과정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족 내부에서도 이해받지 못함으로써 상담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Guernsey(1964)는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하여 부모가 수치심이나 무능함을 느끼는 전통적인 치료와는 달리 그들 자녀의 치료에 필수적인 파트너와 적극적인 동맹을 이룰 수 있는 부모-자녀 놀이치료(Filial Therapy)를 개발하였다. 아동의 문제는 부모의 병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학습하지 못한 부모들의 부모역할하기에 대한 실패라고 하였다. 그런 시각에서 출발하여 부모는 치료적 대행자로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습득한 기술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녀의 삶에 영구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데서 큰 힘을 받는다. 물론 모든 부모와 아동에게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극심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이거나 아동이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갖고 있을 때는 부모가 효과적인 치료적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Bratton & Landreth,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갖고 있는 애정, 주의, 관심이 치료자가 지닌 것보다 훨씬 더 치료적이라는 것은 부모가 치료자보다 잠재적으로 더 많은 정서적 의미를 지니고 아동의 삶에 일차적인 변화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음(Guernsey, 1964)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은 집단 프로그램으로써 집단 과정과 집단 치료적 요소를 갖고 있고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장점도 있다.

이와 같은 이점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부모-자녀 놀이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특히 프로그램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다양한 범주의 부모와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위해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실증주의적 효과 검증에 주력해 왔다. 그런 실증주의적 연구를 통하여 대부분의 부모 집단과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Andronico & Blake, 1999; Bratton, 1993; Glover & Landreth, 2000; Kale & Landeth, 1999; Lee &

Landreth, 2003; Smith & Landreth, 2003; Tew *et al.*, 2002; Yuen *et al.*, 2002)을 증명하였다. 국내에서도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예방적 차원의 부모교육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범주의 부모와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을 위해 실시하고 그 효과성에 관해 실증적 연구(김재환, 부정민, 2006; 백지은, 이정숙, 2009; 이은하, 2006; 이은하, 정계숙, 2006; 장미경, 1998; 장미경 외, 2009; 장미경 외, 2007; 정계숙, 이은하, 2005; 정계숙, 이은하, 2008; 최영희, 2006; 최영희, 2007a; 최영희, 2007b)를 진행해 오고 있다. 연구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부모의 공감능력 등 양육기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의 질이 증진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증적인 연구들은 프로그램의 주체인 부모와 자녀의 가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많았다. 사실 부모-자녀 놀이치료 자체는 우리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과연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성과 검증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을 맥락적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모-자녀 놀이치료에 관한 질적 연구(정계숙 외, 2006; Bavin-Hoffman *et al.*, 1996; Edwards *et al.*, 2007; Lahti, 1993; Solis *et al.*, 2004; Steen, 2005; Winek *et al.*, 2003)가 이루어지고 있다. Bavin-Hoffman *et al.*(1996)은 현상학적 방법으로 결혼한 부부가 부모-자녀 놀이치료 이후에 가족과 부부 관계의 변화를 연구하였고, Lahti(1993)는 민속지학적(ethnographic) 방법으로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 변화하는 관계, 부모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었다. Steen(2005)은 질병이 있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변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dwards *et al.*(2007)은 자메이카에서 이민 온 지 10년 된 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자신이 인식하는 부모-자녀 놀이치료의 효과성과 모-자 관계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는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을 통해 공감(empathy)능력과 아이의 욕구를 인식하는 능력은 증가하였으나 제한설정(limiting setting)과 트래킹(tracking) 기술은 적용하는데 어려웠다고 보고하였고 궁극적으로 모-자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했다. Solis *et al.*(2004)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놀

이치료 과정과 효과를 사례 연구하였는데 혼란 내용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허용과 비지시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일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관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정계숙 외, 2006)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내적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부모-자녀 놀이치료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놀이치료에 참여하는 주체가 어머니들인 점을 감안하여 어머니들의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봄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생활세계를 미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어머니들이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체험의 양상과 그 체험의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나게 된 연구 참여자<sup>1)</sup>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어머니(연령)	직업	교육수준	아동(연령)	성별
김경진(41)	전업주부	대졸	김지현(8)	여
이혜원(37)	어린이집원장	대졸	홍정진(7)	남
강정은(39)	전업주부	대졸	김세준(7)	남

지현 어머니 김경진씨는 종결한 연구자의 내담자가 소개한 어머니이다. 아이에 대한 특별한 주호소는 없었으나 최근 아이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상호작용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단지 아이가 외동이라 부모 눈에 부족해 보이는 점도 보완하고 커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법 등을 배워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성진이 어머니 이혜원씨는 연구자와 잘 아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2009년 가을쯤 연구자에게 성진이 양육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설계하면서 참여를 권유하였는데 흔쾌히 허락하였고 다른 참여자를 데리고 오기도 했다. 3명의 참여자 중 유일하게 일하는 어머니이다. 본인이 일을 하여 항상 바쁘니 아이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들어줄 여유가 없다. 항상 빨리 상황을 종료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하여 해결해 주도록 하게 된다. 알면서도 안 되는 자신의 태도가 문제라고 했다.

세준이 어머니 강정은씨는 세준이를 성진이와 같은 유치원에 보내고 있어, 성진이 어머니와는 잘 아는 사이이다. 그러다 보니 성진 어머니의 권유로 이 혼란에 참여하게 되었다. 세준이에 대한 주호소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친구에게 짜증을 부리고 자기만 미워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 세준이를 친정집에서 키웠고 주로 주말에 친정에 들러 아이를 보았다고 했다. 동생을 낳을 때쯤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잘 안 되는 마음(예뻐하지 않은 마음)이 공존하여 아이를 잘 대하지 못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 2. 연구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부모-자녀 놀이치료 참여에 관한 연구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어머니들의 체험 양상과 의미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연구 과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장에 들어가는 일은 필수적이다(김영천, 2006). 그런 이유로 연구자는 연구를 설계할 당시 상담자로서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것은 상담자로서 집단을 이끌 때 어머니들과 자연스럽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에믹(emic)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2010년 1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0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상담자로서 어머니들을 매 회기 만나면서 Spradley (1980)의 조연대로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외부자로서 그들을 관찰하였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과 같이

1)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둔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느낌과 감정을 보기도 하고, 반면에 각각의 어머니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일상적인 관찰과는 달리 그들의 경험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놀이치료법

훈련 매뉴얼: 부모의 훈련을 위한 10회기 부모-자녀 놀이 치료 모델(Child Parent Relationship Therapy Treatment Manual; A 10-Session Filial Therapy Model for Training Parents)’이다(Bratton *et al.*, 2006). 10회기 훈련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자녀 놀이치료 10회기 훈련 내용

회기	목표	내용
1회기	훈련목표와 반영적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식적인 인사와 집단에서 서로 나누기</li> <li>* CPRT의 기본 전체에 근거하여 간단하게 개요를 소개</li> <li>* 서로 친숙해지기: 부모 소개와 집중할 자녀 선택하기</li> <li>* 반영적 반응의 개념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기</li> </ul>
2회기	놀이세션의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세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 그리고 목표에 대해 소개</li> <li>* 특별 놀이시간에 사용하게 될 놀이감 목록을 제공하고, 시범을 보이고 각각의 원칙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li> </ul>
3회기	부모-자녀 놀이세션 기술과 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들이 놀이세션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부모-자녀 놀이세션에서 ‘해야 할 것과 ’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개요를 설명</li> <li>* 어머니에게 놀이세션 과정에 대한 목록을 나누어 주어 놀이세션을 준비하도록 한다.</li> <li>*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첫 번째 놀이세션을 실시하도록 설명하고, 1명의 부모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놀이세션을 비디오 녹화하도록 다음 주 세션에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li> </ul>
4회기	슈퍼비전 형식과 제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실시한 첫 번째 놀이세션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한다.</li> <li>* 부모-자녀 놀이세션 비디오 슈퍼비전</li> <li>* 제한 설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범; A-C-T방법</li> <li>* 어머니들이 역할 놀이를 통해 연습하도록 한다.</li> <li>1명의 어머니가 다음 주 세션에 비디오 녹화를 해오도록 한다.</li> </ul>
5회기	놀이세션 기술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놀이세션 보고와 비디오 슈퍼비전</li> <li>* 제한 설정을 집중하여 역할놀이로 연습해 본다.</li> <li>* 필요하다면 놀이세션 기술을 복습하고 시범을 보인다.</li> <li>* 1명의 어머니가 다음 주 세션에 비디오 녹화를 해오도록 한다.</li> </ul>
6회기	슈퍼비전과 선택권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놀이세션 보고와 비디오 슈퍼비전</li> <li>* 선택권 주기: 자기 통제력, 책임감 및 의사결정에 대해 교육하기</li> <li>* 선택권 주기 전략: 작은 아동에게는 작은 선택을 주고 큰 아동에게는 큰 선택을 하도록 제공</li> <li>* 진보된 선택권 주기: 결과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기 모든 문제를 결정 하기에는 아동이 아직 미성숙하다. 간단한 성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 부분적으로 통제하게 한다.</li> <li>* 1명의 어머니가 다음 주 세션에 비디오 녹화를 해오도록 한다.</li> </ul>
7회기	슈퍼비전과 자기 존중감 형성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놀이세션 보고와 비디오 슈퍼비전</li> <li>* 자기 존중감 형성하기 반응: 기본규칙인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절대로 아동을 위하여 대신해 주지 말라’를 소개한다.</li> <li>* 1명의 어머니가 다음 주 세션에 비디오 녹화를 해오도록 한다.</li> </ul>
8회기	슈퍼비전과 격려해주기 대 칭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놀이세션 보고와 비디오 슈퍼비전</li> <li>* 격려해 주기 대 칭찬하기 : 격려해 주기의 개념이 칭찬하기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훈련 세션에서 설명한다. 기본규칙인 결과를 칭찬하기보다는 과정을 격려해 주어라를 소개한다.</li> <li>* 1명의 어머니가 다음 주 세션에 비디오 녹화를 해오도록 한다.</li> </ul>
9회기	슈퍼비전과 일반화하기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놀이세션 보고와 비디오 슈퍼비전</li> <li>* 진보된 제한 설정: 순종하지 않은 결과에 따른 선택권 주기</li> <li>* 놀이세션 밖에서의 기술 일반화하기</li> <li>* 1명의 어머니가 다음 주 세션에 비디오 녹화를 해오도록 한다.</li> </ul>
10회기	평가 및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놀이세션 보고와 비디오 슈퍼비전</li> <li>마지막 세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어머니 자신과 자녀들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발전된 모습을 인식하고 종결한다. 후속 집단 세션 계획을 기획한다.</li> </ul>

자료 수집은 2009년 12월부터 시작하여 3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 먼저 접수 면접을 2009년 12월에 각각의 어머니들을 만나 실시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들의 이야기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10회기 동안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된 2시간 남짓의 훈련 내용을 모두 mp3에 녹음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매 세션이 끝난 후 바로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사와 함께 현장일지(field note)에 각각의 어머니들의 특징적인 이야기나 모습을 관찰하고 느꼈던 점, 관련하여 떠오르는 단상 등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참여자들과의 비형식적인 대화는 훈련 기간 동안 수시로 이루어졌고, 각각의 어머니들과 공식적인 면담(interview)은 훈련 회기가 모두 종결된 후에 한차례씩 가졌다. 면담의 내용은 주로 연구자로서 참여관찰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 즉, 10회 매 회기에서 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어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보고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는지 당시의 경험을 다시 구체적으로 듣고자 했다. 또한 10회의 훈련과정을 전사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의문들을 반구조화 된 면담형식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하였다. 특히 집단과정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어머니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일이 필요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들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슈퍼비전을 위해 사용된 놀이세션 비디오자료도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및 해석은 현상학 연구의 절차를 따랐다. 세 어머니의 자료(참여관찰, 면담자료 등)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자료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주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초기에는 내부자의 용어(emic term)로 개방코딩을 실시한 후 유사한 주제로 범주화하고 선별화 하는 심층 코딩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의 부모-자녀 놀이치료 참여에 관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에서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데 지침이 되는 네 가지 체험 형식인 체험된 것으로서의 시간, 공간, 신체, 관계(lived time, lived space, lived body, lived relationship)에 따라 반성(reflection)해 보았다. 체험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매개체인 의미구조는 생활세계에서 복잡다단하게 나타난다(van Manen, 1994). 특히 어머니들은 10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낯선 경험을 하게 된다. 어머니들은 그 시간 속에서 아이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아이와 놀이하는 공간, 타자와 만나는 공간,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신체와 관련된 행동들을 체험하게 된다. 연구자는 어머니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체험을 그와 같은 체험 형식으로 반성해보는 일을 통해 그들 체험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지침으로 네 가지 체험 형식을 활용하였다.

연구자에 의해서 포착된 의미들은 글쓰기 과정을 통해 정리하였다. 물론 글쓰기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연구자로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등을 글로 정리해 두었다. 그 글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특히나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로서 현상을 더욱 반성적(reflective)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결국 반성과 글쓰기라는 나선형적 순환 과정을 거치며 텍스트를 완성해 나갈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의 구성이 기술과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본 텍스트도 맥락과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기술하고, 발견한 의미와 사실들을 나름대로 논리적,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근호, 2007)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 회기 한국놀이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놀이치료 전문가로부터 10회에 걸쳐 슈퍼비전을 받았다. 슈퍼비전은 매 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한 자료를 놀이치료 전문가에게 메일로 보내, 진행 한 부분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았고, 어머니들이 놀이세션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아동의 놀이세션 동영상을 미리 메일로 받아 놀이치료전문가에게 전달하여 슈퍼비전 시간에 동영상을 같이 보며 어머니들에게 슈퍼비전 해주어야 할 사항과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패턴 등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자가 슈퍼비전 받았던 내용은 어머니들에게 슈퍼비전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여 다루었다. 그리하여 놀이치료 전문가의 슈퍼비전은 자연스럽게 진행과정과 현상에 대한 토론과 반성을 같이 할 수 있었다. 텍스트가 완성 된 이후에는 슈퍼바이저에게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부탁하였고 연구자의 해석이 조용환(1999)의 말대로 ‘어느 정도 그럴듯한지’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실시하였다. 즉, 매 회기 슈퍼비전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동료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있는 한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member check)를 부탁하고 피드백을 받아 텍스트를 정리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어머니들의 부모-자녀 놀이치료 체험 양상

어머니들의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의 체험 양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시간, 공간, 관계와 신체라는 4가지 체험 형식으로 반성(reflection)해보고자 하였다. 그들의 체험의 양상을 4가지 체험 형식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생활세계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시간, 공간, 관계, 신체라는 형식을 나누어 정리하지 않았다. 하나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체험 형식으로 중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Lee, 2005).

##### 1) 우선되지 않는 시간

부모-자녀 놀이치료 훈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첫 번째 훈련세션에서 ‘집중’할 자녀를 한명씩 선택한다. 어머니들이 10세션 훈련 받는 동안 1주일에 한번씩 7번의 특별 놀이시간을 함께 할 아이이다. 부모-자녀 놀이치료 훈련 자체는 오직 한 자녀하고만 특별놀이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첫 세션부터 의도적으로 한 자녀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머니들은 이미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한 자녀를 염두에 두고 훈련에 참여하였다.

첫 시간에 어머니들은 아이들 중 한명을 선택한 이유를 각자 나누고 그 아이에게 집중할 것을 의식적으로 다짐하였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선택한 이유는 특별 놀이시간을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니들이 “선택”한 “집중”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특별 놀이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시간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이번에 또 제 시간에 못했어요. 엄마 생신 있어서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고 갔어야 되는데 선물 사고 왔다 갔다 하고 못하고 그냥 갔다 와서도 못하고... 일요일 밤 9시가 제일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갔다 와서 할머니 생신에 대해서 일기 쓴다고 하고 일기도 안 썼거든요. 그리고 자고 어저께 월요일 9시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수학 문제 조금 풀고 있어. 엄마 깨워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지현이도 옆에서 문제 풀다가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애도 나오더라고요 “너 졸리니?” 했더니 안 졸림대요. 일기도 안 썼어요. 일기도 써야 되는데 “일기 쓸래? 놀이할래? 하니까 놀이하겠대요.

지현 어머니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괜찮다고 시간을 잡아놨는데 학교 입학하니까 학교 가는 토요일이 생기잖아요. 이러니까 갔다 오고 영어 숙제 때문에.. 영어 숙제 토요일 날 해놔야지 일요일 날 놀 수 있거든요. -중략- 그리고 아빠한테도 불편하고 세준이 동생한테도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애 때문에 돌아 나가는구나, 빨리빨리 끝내고 상황을 종료시켜놔야지 들어 왔을 때 마음이 편하겠구나. 사실 안에서 뒤끝이 땡기죠.

세준 어머니

이 훈련에서 전제하는 놀이시간의 구조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놀이시간을 같은 시간에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감을 느끼는데 필수적이라는 것(Bratton & Landreth, 2006)이다. 그러나 지현이 어머니의 표현대로, ‘시간을 지키는 일’은 어머니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세준이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지현이 어머니나 성진이 어머니 모두 놀이시간을 구조화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 세준이 어머니에게도 예외는 아닌 듯 했다. 시간은 지키고 있으나 어머니의 마음은 “뒤가 땡겨”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특별 놀이세션을 준비하면서 아이와 자신이 편안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시간으로 배치하였지만, 어머니들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시간을 우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집중할 아이를 선택하고 특별 놀이시간을 갖겠다던 의도적인 집중과는 다른 모순이었다. 이면에는 어머니들에게 세계-내-존재로서 ‘무언가 해야 할 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지현이 어머니의 말처럼 “가족행사”가 있고, 성진이 어머니처럼 일하는 어머니들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고, 세준이 어머니처럼 아이의 숙제가 있는 경우 등 다른 일과 겹쳐질 때 이 놀이시간은 우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시간을 의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은 말 그대로 특별 놀이시간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이와 어머니와 둘만의 ‘사적인 시간’이 그들의 세계와 관련된 ‘공적인 시간’에 우선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성진이 어머니는 자메이카 어머니의 보고와 마찬가지로(Edwards *et al.*, 2007)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일하는 시간’은 어머니에게 공적인 시간이 되고 그 일이 우선된다. 그리고 지현이 어머니에게 ‘엄마 생신’은 자신과 아이의 사적인 시간과는 대별되는 가족들의 암묵적인 약속인 ‘공적 시간’이 된다. 그러한 공적인 시간들은 세계-내-존재인 어

머니들에게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아이에 대한 ‘마음 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사실 아이와 어머니의 ‘특별한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밀한 공간과 같다. 둘만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시간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진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둘만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을 공유한 사람과의 관계는 더 없이 가까워지고, 쉽사리 ‘친밀감’의 표상과 결부된다(이진경, 2000). 그러나 집이라는 공간 자체는 가족과 유리된 시간을 만들기가 용이하지 않고, 아이들 또한 공적인 시간, 즉 학교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집은 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이 둘만의 사적인 시간을 내기에는 쉬운 곳이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놀이시간이 ‘우선되지 못하는 것’은 복잡한 현상으로 느껴졌다. 그 안에는 공간과 관계의 문제가 함께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2)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지루했어요”

어머니들은 아이와 ‘특별 놀이시간’을 가지면서 놀이 지침들을 이행해 나가야 했다. 놀이세션에서 필요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익히고 아이와의 특별 놀이시간에 적용해 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지침들을 놀이세션에서 사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지현 어머니 : 백지가 되는 거 같아.

성진 어머니 : 어. 그래서 생각이 안나. 맞아요.

지현 어머니 : 바보가 되는 거 같아. 진짜 바보래도 사람이면 말이 나가는 데 말이 안 나가니까.

성진 어머니 : 맞아. 맞아. 하얗다는 게 그 소린 것 같아. 아니 반응을 해 줘야 되는데. 어 그래 아까 선생님은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그래 “내가 바보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규칙대로 따라가는데 내가 뭘 말을 해줘야 하는데 뭘 말을 해줘야 하는 지 그 뒤에는 하얗다니까. 임기응변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자체가 하예요.

지현이 어머니는 놀이세션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게 맞나?”하는 의문이 들면서 머리가 “백지”가 되는 것 같았다. 성진이 어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해야 하는 지침에 ‘아이가 인도하도록 바보가 되라’는 말에 그녀는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았다. 말을 잃어버리고 도무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능력해지는 것 같았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떤 생각도 떠오르

지 않았다. 이제까지 자신의 신체에 새겨진 것을 잃어버리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느끼는 것 같다.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을 잃고,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신체의 무중력 상태,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일지 모르겠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익숙한 것을 의식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혼돈 상태는 마찬가지로 같다. 어머니들의 신체에 새겨진 ‘자신의 것’을 의지적으로 “잃고”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삶의 방향(orientation)을 찾고자 하는 물음일 것이다. 이러한 애매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어머니들에게 시간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되게 안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감을 좀 잡으니까 시간이 금방가고 아쉽더라구요.

지현 어머니

정말 지루했어요. (강조하여) 정말 지루했어요. 왜 저것(총)만 가지고 놀까? 제가 지금 계속 다른 걸 하기를 바라는데... 정말 답답했죠.

세준 어머니

세준 어머니는 총만 가지고 노는 세준이를 따라가며 영원과 같은 “지루함”을 느낀다. 결국 어머니는 그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제 마지막이야 하는 것 아니야? 계속 쓰면 그렇지 않아?” 하고 말해 놓고는 “이게 아니지”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향을 잃고 기다리다, 방향성을 찾지만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의 운동이 아니라 잠시 ‘잃고’ 있었던 자신의 습관이었다.

새로운 몸의 운동 방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도구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습관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로 존재를 확장시켜나가는 능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들에 우리를 병합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Merleau-Ponty(1945)

Merleau-Ponty(1945)의 말처럼 우리가 ‘새로운 운동 방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성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기존의 운동방식을 잃어 버렸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할지 모르는 혼란의 시간 속에서 다른 도구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도구를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도구’를 아직 다룰 수 없을 때 그 혼란의 시간은 마치 정지된 듯, 그리고 시간이 더디 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 새로운 운동방식을 획득하면 지현이 어머니의 말처럼, 이제 삶이 재미있어 진다. 그때 우리의 시간체험은 점점 빨라지고 급기야는 그 시간이 지나버린 것에 아쉬움을 남긴다.

### 3) 잃어버린 반응: 놓치기

그 상황에서 반응을 못하고 놓친 것 같아서... “네가 신났구나” 이런 것도 해줬어야 했는데... 참여를 해도 우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놓치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또 ‘하지 말라 한 것’ 하려다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제 표정이 어둡고...  
지현 어머니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이미 그 상황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 혼자 “그랬군”(다들 웃음) (웃으며) 전형적인 실패적인 것 같아요.(다 같이 웃음(세준 어머니: 다 같아요))  
성진 어머니

어머니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별 놀이시간에 적용할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하면서 어머니들은 또 하나의 과정을 거쳤다. 그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도구들을 내려놓고 혼란의 시간을 보낸 다음이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보는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진 어머니의 말처럼 반응을 하지 못하고 “상황은 이미 지나가 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의식이 되는 것이었다. 얼마 전까지는 뭐가 뭔지 몰라 “백지”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 몸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다.

Merleau-Ponty(1945)에 의하면, 인간은 세계-에로-존재로서 신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체험이라고 한다. 어머니들은 세계-에로-존재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해 보고자 하지만, 성진 어머니의 말처럼 생각을 하고 뭔가 반응하려는 순간 이미 ‘그 때’를 놓치게 된다.

우리는 원하는 행동을 습관으로 형성하고자 할 때 이런 체험을 하곤 한다. 나의 본래의 행동들을 의식으로 묶어 놓고, 내가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실행을 생각하는데 그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즉시적으로 동참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

여 몸의 운동성을 잃고 순간을 포착하지 못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도 나타난다(Lee, 2005). 즉, 머릿속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다 대화의 흐름을 놓쳐버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들 또한 머릿속으로 반응을 생각하다 그만 아이와의 자연스런 상호작용의 흐름을 놓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머니들의 새로운 삶의 형식을 학습하는 행위는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경험(Bratton & Landreth, 2006)과 같을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들의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습관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같다. Merleau-Ponty(1945)의 표현을 빌면, 그것은 ‘반성적 자아’ 때문이다. 반성적 자아는 우리 몸에 깊게 새겨진 몸적 자아를 머뭇거리게 하기도 하고, ‘순간’을 놓쳐 되뇌어 보게도 한다. 그것은 새로운 몸틀로 재구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길들여진 기존의 몸틀을 새로운 틀로 배치하는 것은 어머니들에게는 도전임에 틀림없다. 지현이 어머니의 말처럼 놓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 지 ‘의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며 그것은 변화의 길 위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누구나 항상(向上)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향상을 포기하거나 미룰 때조차도 향상의 의지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살아 있다. 향상의 의지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과거보다 나은 현재,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소망하는 실존의 모색이다.

조용환(1997)

조용환의 지적처럼, 인간은 향상을 위한 실존적인 존재로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들의 실행을 위한 실존적인 모습들은 몸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이는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 4) “판을 벌리는 공간”

어머니들이 아이와 특별 놀이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집 안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일부터 해야 했다. Bratton과 Landreth(2006)의 제안대로, 집 안에 장소를 정하는 데 놀이세션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비밀이 보장되고,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소중한거나 비싼 물건들을 부러뜨리



거나 더럽힐 염려가 가장 적은 곳을 선택하였다. 놀이시간과 마찬가지로 선택한 장소 또한 놀이세션을 하는 동안 가족들로부터 방해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놀이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들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들에게 어려웠던 일은 그 공간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판을 벌려야 되는 게 참 번거러웠어요. 매시간 판을 벌려야 되는데 힘들 때는 놀이감을 매번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가족들 없을 때 해야 되니 가족들을 내보내야 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차라리 애 아빠하고 성진이 동생을 내보내느니 제가 성진이라고 아랫집 시어머니 댁에 가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왠지 어려모로 번거러워서 놀이시간을 갖는 게 처음에 더 염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성진 어머니

성진이 어머니 이야기처럼, 놀이 공간은 “판을 벌려야” 하는 공간으로 어머니들에게 ‘이미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었다. 3차원의 공간이 되기보다는 마치 평면과 같은 공간으로 지각되는 것 같다. 그래서 윗 판을 벌리 듯, 놀이판을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놀이감을 가져와 놀이공간을 매시간 생성해야만 하는 그런 공간이다.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어머니들 안에는 그 놀이 공간이 안정된 공간이 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임시성을 띠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는 항상 기억되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즉, 공간 자체가 어머니들에게 내면화되지 않아 놀이시간을 우선하지 못하고 시간을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 보였다. 어머니들의 내면에 놀이 공간은 공고하게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판’을 벌려야 한다는 의식은 어머니들에게는 “번거러운 일”이 되고 책임과 의무와 같이 “해야만 하는 일”로 느껴진다. Gadamer(1990)의 말을 빌면, “놀이하는 사람은 놀이하는 데에 전적으로 몰두할 때에만, 놀이함은 그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들은 놀이에 아이를 초대하기는 하지만 마치 ‘숙제’하듯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됨으로써 진정한 놀이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이들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놀이시간을 정말 기다려요. 우리 지현이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일곱 번 한다고 했지? 이러면서 자기가 세 번을 했고, 이번하면 아직... 지현이 한테는 여섯 번 한다고 했나? 아무튼 세 번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중략 어느 날은 자기가 놀이감을 가져와 펼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이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현 어머니

“몇 번 남았다”고 세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해줬어요.

성진 어머니

아이들은 놀이세션이 시작되면서 놀이 공간을 그리워하고 기다렸다. 어머니들과는 달리 놀이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남은 놀이시간을 매시간 세기도 하고 놀이시간을 엄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아이들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고, 어머니들로 하여금 놀이 공간을 ‘펼치게’ 하는 힘이 되었다. 지현이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진경, 1997)처럼 그 공간을 기억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움직임 즐기는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그 공간을 그리워하는 것은 엄마와 함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리움인지도 모르겠다.

개는 엄마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엄마와의 둘만의 시간을... 여태껏 그럴 수도 없었고 제공도 안했고 그랬는데 그 놀이 세션 동안 아빠 나가지 동생 나가지 딱 정말 자기랑만 있었어요 온전히... 그래서 세준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준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준 어머니

세준이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아이들은 이 놀이공간에서 온전한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안정과 정신적 안락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느꼈던 아늑함과 편안함을 그곳에서 다시금 느끼는 것(Tuan, 1977) 같다. 세준이 어머니의 말대로 세계-내-존재로서 어머니가 ‘해야 하는’ 다른 일을 내려놓고 “온전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아이 앞에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어머니들은 “놀이판”을 의식적으로 생성해 냄으로써 아이들을 놀이 공간에 초대했지만,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으로 그 놀이공간을 다시 구성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어머니들을 역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순환적 과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놀이판을 벌이는 주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하여 양자가 놀이를 초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판을 펼치는 주체의 행위는 능동과 수동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 5) “둘이 있는 게 어색해요”: 어색한 만남

처음에 놀이세션을 가지면서 어머니들은 자신 안에서 느껴지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 무엇인지 관찰해보고 오는 것이 과제였다. 부모의 감정에 초점을 두는 일은 부모-자녀 놀이치료 훈련의 필수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Bratton & Landreth, 2006).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타인의 감정을 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어머니들과 나누면서 참여 어머니들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 유사하다는데 놀라웠다. 성진 어머니는 성진이 이 짧은 30분 놀이시간에 흥분하는 걸 보니 “내가 그동안 별로 해준 게 없구나.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아이를 위해 시간을 못내는 자신에 대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다 자신의 감정을 마치 보물섬에서 보물이라도 발견했다는 듯이 그건 “어색함”이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선생님 생각났어요. 60%가 제일 많았던 게 어색함이었어요. 그게 정말 컸어요. 언어도 그랬고 (웃으며)거기 앉아서 보고 기다리고 하는 그 시간이 그 기다리는 자체가.. 제가 그렇게 놀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색해요. -중략- 가끔 가다가 (웃으며) 제가 일부러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 너 되게 재미있겠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웃으며)그게 더 어색한 거예요. 그니까 그 상황이...

성진 어머니

Bratton과 Landreth(2006)의 말대로 어머니들은 아이와 둘만의 시공간에서 조우하는 경험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놀이세션 안에서 느꼈던 첫 번째 강렬한 감정은 ‘어색하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많은 시간과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전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과 시간에 존재 한다고 해서 상호간에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어머니와 아이가 질적인 시간을 함께 하는 경우도 흔한 경험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짧은 3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이와 어머니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을 갖지만 그 만남이 너무나 낯설어 어쩔 줄 모른다.

성진이 어머니는 아이와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쇼핑을 가거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간을 그토록 어색하게 느꼈을까? 세준 어머니는 “아이와 뭔가 집중하면서 있었던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많지 않았음을 느낀다. 성진 어머니 또한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해보지 못한 것,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색했다고 했다.

놀이는 시간과 관계 공간이 놓인 맥락에서 달라지는 역동적인 현상(Jo, 1989)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놀이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놀이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놀이라는 경험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의 맥락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적으로 느끼던 아이와의 감정이 처음으로 둘만이 마주하는 놀이공간 안에서 ‘어색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새로운 역동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놀이는 함께하는 이와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새로운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경애, 2007)한다고 한다. 어머니들은 익숙하지 않은 그 공간 안에서 아이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만남의 경험은 인간의 삶 속에 침입해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그의 걸음을 갑작스럽게, 그리고 대부분은 고통스럽게 중단시키며, 그리하여 결국은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Bollnow(1971)

Bollnow(1971)의 말처럼, 어머니들은 아이와 새로운 시공간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만남을 통해, 삶의 새로운 방향을 돌아보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것은 일상적인 시공간이 아닌 낯선 놀이 공간이라는 점에서 어머니들에게는 하나의 실존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 6) 자신 알기

부모-자녀 놀이치료에 참여하면서 어머니들은 몇 가지 놀이세션 기술들을 실행하도록 소개 받는다. 그리고 ‘부모-자녀 놀이세션 진행과정 점검표’를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본다. 훈련 과정에서 알게 된 기술들을 행해 보면서 어머니들은 자신이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예컨대, 세준이 어머니는 제한 설정에서 ‘감정을 인식(Acknowledge)’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할 때부터, 제가 참 A가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중략- 보통 집에서는 C하고 T는 하는데 나는 보통 A는 안하거든요...

세준 어머니

아이의 감정을 읽어야 하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게 “재미있겠구나” 이말 보다는 “재미있니?”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니

까 우선은 개가 재미있는 건지, 신기한 건지 확인을 하고 개가 그렇다하면 뭐 거기에서 “아 그렇겠구나”라고 인정을 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내가 모르는데 선불리 나의 생각으로... 다 감정을 “그렇겠구나”하고 내뱉는 게... 제한하는 거 오히려 선택하라는 거는 쉽게 나오는데 인정해 주는 게 안 되는 거는 또 한번 느껴요. 그냥 개 마음만 아이 마음만 인정해 주면 (웃으며) 많이 먹고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안 되고 저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 같고 어쩌다 물론 상황이 되면 “어 네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심으로 안 되는 거죠.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진 어머니

어머니들은 새로운 형식에 자신을 적용시켜가면서 조금씩 어떻게 해야 한다는 앎을 구성 해갔다. 그러나 어머니들에게 모든 것이 잘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삶의 형식’을 대입해 보면서 세준이 어머니와 같이 “감정인식이 안되기”도 하고 성진이 어머니와 같이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것을 알아간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실행해 나가려고 하지만 어머니의 몸에 깊이 새겨진 행위들을 새로운 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어머니들을 지탱해 오고 어머니들의 역사 안에서 생성된 양태이기 때문에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다. 행동은 자기 인식의 한 기능으로, 어머니들의 자기 인식을 하도록 돕는다(Bratton & Landreth, 2006). 어머니들은 몸을 통해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해 봄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 인지를 알아 갔다.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해 보는 것으로 세준이 어머니와 성진이 어머니와 같이 내 몸에 ‘낮설음’과 ‘친숙함’을 찾아내었던 것이다. 낮선 경험은 어머니들의 몸에 새겨진 것과는 다른 이질적인 현상이고, ‘친숙함’ 경험은 본래부터 어머니들의 도구였음을 깨달아 간다. 그러한 인식은 몸으로 행함을 통해 직접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신체에서” 이룩한 것이다(Bollnow, 1981).

이전까지 어머니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의식적으로 해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10주간의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새로운 형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매 세션마다 도구들을 사용해보고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잘 안 되는 것, 너무나 친숙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30분의 놀이세션을 넘어 일상에서도 그러한 도구들이 전경(全景)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어 모종의 상황 안에 존재하는 자신을 따라가 본다. 그리고 어머니들 안에 어떤 물을 “왜 안될까?” 하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통찰을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행위를 통한 자기 인식은 자신을 알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하부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은 이제 자신을 넘어 나와 타자(아이)의 관계를 보게 한다.

### 7) 아이와 나의 관계 양상 보기

부모-자녀 놀이치료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던 일은 아이와 함께 한 놀이세션에 대한 슈퍼비전이었다. 매번 번거롭게 비디오를 찍어 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타인과 함께 봐야한다는 것도 어머니들에게는 그다지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지현이 어머니는 처음 놀이세션을 갖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하는 말을 하자, 어머니들은 모두 공감했다는 듯이 다 같이 깔깔대며 웃었다. 지현이를 비롯하여 아이들은 “신청 잘 한거야”하는 반응이었지만 촬영 해온 비디오를 처음부터 낯선 사람들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은 어머니들에게 그리 신나는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 녹화 해온 비디오에서 지현이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구석에 자기 몸을 배치하고, 성진이 어머니는 뒷모습만을 보여주는 배치로 녹화를 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들의 몸의 배치와 각도는 많이 자연스러워져 카메라 밖의 타자를 그다지 의식하는 것 같지 않았다. 지현이 어머니는 처음에는 참 “의식이 많이 되었다”고 하고 세준이 어머니는 몸을 의식적으로 안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창피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비전을 함께 하며 어머니들은 더욱 친숙해지고 카메라 속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과 아이의 관계의 실재(reality)를 보게 되었다.

저도 뭐 (웃으며) “빨리 빨리”하거든요. 저보다는 지붕 뚫고 하이킥의 해리 그거 보고... 별 의미 안 붙이고 저는... 어쩌면 자기가 평상시에 당했던 거를 이렇게 바꿔서 저한테 (웃으며) 그럴 지도 모르겠는데 잘 생각 해 볼게요. - 종략- 저는 이게 제 평상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벗어난 것 아니면 거의 맞춰 줄라고...

지현 어머니

전 tracking 할 게 없고, 아이가 잘 참여 안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고... 그리고 개가 나한테 뭔가 했을 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이럴 때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제가 약간 좀 아이한테 평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집 애들

적응시킬 때는 울거나 이러면 정성껏 이론대로 하는데, 저희 애 들한테는 이론대로 안하고 제 성격대로 하는 것 같아요.

성진 어머니

지현이 어머니는 놀이 상황에 놓인 자신과 지현이의 모습을 이번엔 타자화해서 보면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대 하는 모습’을 보며 “평소에 자신에게 했던” 태도가 아닐 까 생각해 본다. 놀이에서 끊임없이 아이의 요구에 모두 “맞춰 주는” 자신을 보면서 “평상시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머니가 정해 놓은 한계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맞춰 주기!”-자신과 아이의 관계 맺는 방식-는 놀이에서 그대로 드러나 더 극명하게 보게 된다. 성진이 어머니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언제나 놀이와는 상관없이 그저 있어주는 사람”이고 아이의 놀이 상황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어머니는 이렇게 놀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그런 모습이 본래 자신과 아이와 관계 맺기라는 것을 화면에서의 자신을 보며 깨닫는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배울 텍스트가 된다. 어떤 상황에서 우연히 맞닥뜨리는 자신이 아니라 사각형의 화면 속에서 타자화 된 자신을 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 그러나 그런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감정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함께 한 시간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혼자의 슬픔, 기쁨, 걱정이 아니라 그 모두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래서 나의 단면을 보고, 아이와 나의 관계를 보고, 그러다 보니 아이에 대한 이해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

세준이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뜻을 못 펼치고 아직까지도 엄마가 무서우니까 엄마 말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친정 엄마가 하신 말씀도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는 데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모두들 웃으며)

세준 어머니

## 2. 어머니들의 부모-자녀 놀이치료 참여의 의미

여기에서 어머니들의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체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자 한다. 그들의 체험을 내부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외부자의 관점을 더해 해석해 보았다.

### 1) 관찰자-되기

제 것 같이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됐죠. 막연히 하는 저도 알죠. 그런데 (웃으며)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현장으로 딱 보니까 내가 이런 엄마였구나 문제점 내지 그런 것 보이고 그렇구나... 너무 웃기고, 슈퍼비전 받으면서 다 웃었잖아요. 너무 웃기고, 정말 저렇구나 바뀌어지 그런 자각도 되고. 그니까 알아야 바꾸는데, 그냥 뭐 그렇지 뭐 괜찮아... 뭐 이러는데 이게 단면이지만 계속 가면 안되겠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웃으며) 재미있었어요.

지현 어머니

부모-자녀 놀이치료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훈련에 참여하면서 아이와 특별한 놀이시간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슈퍼비전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된 시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프로그램 자체가 구조화되어 자신과 아이의 놀이세션에 대한 영상화된 기록을 면밀히 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즉, 부모-자녀 놀이치료의 주체인 어머니들은 마치 편집되지 않은 다큐멘터리를 보듯 ‘보기’위해서 영상을 대하게 되는 ‘배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주체의 체험 구조는 ‘배치(agement)’를 수행하는 몸의 구조(서덕희, 2009)로서, 어머니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상과 자신을 ‘계열화(paradigmatizing)’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이진경(2002a)의 말대로, 자신의 몸의 태도를 달리하고 ‘보기’ 즉 ‘관찰하기’의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어머니들은 아이와 특별 놀이시간을 구조화하고자 하지만 ‘세계 시간’에 살고 있어 그 시간을 우선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과 관계 속에서 놀이에 몰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이했던 것은 어머니 자신과 화면의 배치는 그들의 신체적 조성을 바꾸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 화면에 비친 ‘30분간’의 자신과 타인의 삶에만 국한하여 ‘보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놀이시간을 넘어 생활세계에 놓인 실존하는 자신과 아이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는 과정을 체험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0주간 아니 그 기간을 넘어서도 어머니는 자신을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지향하고 몰입하여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세준이 어머니는 자신의 일상의 말투에서 아이들에게 명령조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뿐 아니라 남편의 말투 또한 관찰하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화면)만이 자신과 아이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텍스트였다면 이제는 그들의 일상 전체가 자신과 아이를 배울 수 있는 장(場)이 된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들과 화

면의 배치는 몸의 구조를 바꾸고 체화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그들은 ‘관찰자’가 되어가고 (becoming) 있었다.

Deleuze는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되는’ 변화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탈영토화 되고 변이하는 삶을 촉발하는 것이 ‘되기’라고 설명한다(이진경, 2002b). 어찌 보면 어머니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 삶의 ‘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구조적 배치를 감수하였다. 그것으로 자신이 ‘관찰자-되기’를 체화해가고 그들 앞에 놓인 현실에 자신을 곱곰이 살피며 순간순간 자신을 이해하고자, 아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실존적 기투를 하였다. 지현이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그들은 자신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해 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은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지현이 어머니의 말대로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지각하는 삶, 그것은 자각이고 내 삶을 재구성할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관찰자-되기’는 또 다른 삶으로의 변이를 생성해 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에서 어머니들의 ‘관찰자-되기’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서로 얘기를 들어줘서... 사실 저 00 얘기 들으면서 00엄마 입장을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정말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00어머니도 저한테서 배우고서로 배우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 했잖아요. -중략- 그리고 저와 아이에 대해서 돌아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니까 내 성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다른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세준 어머니

처음 슈퍼비전 시간에 자신의 영상을 보는 것은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히려 보는 과정을 거치며 이들은 그들 간의 모종의 동질감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았다. 사실 어머니들의 만남은 우연적이었다. 물론 그들 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이 만남이 의도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동일한 시간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은 어떤 연기(緣起)조건 속에 들어온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어머니’라는 동일한 의미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어머니들 개개인의 놀이세션에서 각각의 상

황들은 그림이 다를 수 있지만, ‘어머니’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세준 어머니의 말대로 모두에게 개연성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그것 자체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계기는 어머니 스스로에 의해서 마련되었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았다. 지현이 어머니의 말대로, “혼자 봤으면 몰랐을 것”이다. ‘같이 보기’는 내가 보지 못한 면을 타자에 의해서 ‘보기’가 가능해지고, 타자가 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의해서 ‘보기’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reciprocal)인 것이며 상호 간에 비계설정(scaffolding)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며 세준이 어머니의 말처럼 “돌아보게” 되고 그러한 변증법적 자기반성은 우리 자신을 되어가게(becoming) (조용환, 2001) 하는 것 같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관찰자-되기’는 조용환(2001)의 말대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존재의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과정일지 모르겠다.

## 2) 돌봄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이 끝나갈 무렵, 세준이 어머니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지현이 어머니는 자신과 아이와의 관계 양상을 알게 되면서 “시원해 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성진이 어머니는 “자신에게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모습은 조금씩 달랐지만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지향했던 것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돌보며 어머니들은 많은 감정의 굴곡을 경험했다. 어색함과 미안함, 아이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 시간을 내지 못해 놀이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아이와 놀이를 함께 하며 아이를 돌보고 ‘좋은 엄마 됨’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들의 아이를 돌보는 행위 자체가 어머니로서 자신을 돌보는 행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물론 어머니 자신이 될 수 없고 그 개인의 전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머니는 궁극적으로는 자식을 돌보고 헌신할 때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어머니의 원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런 이유

로 어머니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어머니임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머니로서 존재의 의미를 느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고, 힘이 들어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이를 잘 키우고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향상의 의지는 어머니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았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놀이세션을 가지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Bratton과 Landreth(2006)의 지적대로 자신의 몸과 정서가 돌봐지지 않으면 안됨을 절실히 깨달아 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지막 세션에 아이와 놀이세션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낸 성진이 엄마는 “자신이 너무 힘들다”라는 정서적 표현을 하며 자신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세준이 어머니는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이 소진되어 있음을 알고 자신을 보살피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존재양식임을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30분이라는 구조화된 놀이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일이었다. 어머니들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며 그런 돌만의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물리적 시간은 짧으나 어머니들은 그런 시간을 내는 것조차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만큼 어머니로서 ‘해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징적인 시간이야말로 아이를 진심으로 보살피고 나와 아이의 관계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임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낸다는 것은 내가 보살피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 또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자녀 놀이치료 집단의 공간은 어머니들 스스로를 돌보는 공간이 되었던 것 같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힘든 점을 내어 놓고, 어머니로서 겪고 있는 실존적 고민을 토로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떤 해결책을 준 것은 아니지만 지현이 어머니의 말처럼 다른 어머니들의 공감을 통해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체험은 어머니들에게 돌봄의 체험이었을지 모르겠다. 실제로 서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위안과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aylor, 2002). 그러한 어머니들의 동질감은 서로가 도구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더 가능한 것 같다.

Heidegger는 잡담과 호기심, 알뜰하고 산만한 것 등이 비본래적인 삶의 특성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 인간이 주고 받는 말은 깊이와 책임성이 결여된 잡담일 뿐이고 잡담과 호기심에는 항상 타인과 사태에 대한 애매하고 무책임한 추측만 있을 뿐 애

정 어린 이해과 관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수정, 박찬국 (1999)

Heidegger(이수정, 박찬국, 1999)의 표현대로 우리의 일상은 항상 본래적인 삶과 본래적인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 공간 안에서 어머니들은 실존을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해 “애정 어린 이해와 관심”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 ‘책임 있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한다. 그래서 그 시간은 바로 서로를 돌보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며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본래적 삶’으로 귀의(歸意)하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IV. 논의 및 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어머니들의 부모-자녀 놀이치료 참여의 과정에서 드러난 체험의 양상과 그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이었다. 이 치료 모델은 미국에서 구조화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한국 어머니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그 과정을 맥락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체험적 의미를 탐색해 봄으로써 한국적 상황에서 어머니들과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볼 수 있었다. 물론 국내에서도 부모-자녀 놀이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변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 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볼 수는 없었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가 그렇듯이 소수의 참여자들을 관찰함으로써 양적 연구들이 보지 못하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이 논문은 부모-자녀 놀이치료가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경험되고 있는지 소수의 사례를 통한 실재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특별 놀이시간을 구조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와 특별 놀이시간을 갖는 것은 부모-자녀 놀이치료 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이다.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아이는 그 시간과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지각할 것이고 아이는 엄마로부터 매우 중요한 대

상으로 새롭게 지각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특별 놀이시간을 우선하지 못했다. 그것은 시간 뿐 아니라 공간과 관계의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현상은 우리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문화가 ‘가족’이나 ‘우리’ 혹은 ‘공동체’라는 가치를 중요시 해왔고 그것이 어머니들에게 깊숙이 내면화되어 공격적인 일이나 관계 차원에서 개인적인 만남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집은 가족의 공동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공간을 배려하고 중시하는 미국과 같은 서구와는 다른 현상이다. 특별 놀이세션이 일반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서 구조화 하는 것 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집단(무료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 놀이세션의 구조화 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유료 집단과 비교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생각한다.

둘째, 부모-자녀 놀이치료는 부모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심리치료의 부담을 안고 부모자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특히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관찰 등을 통해 자기 이해와 타인(아이와 타인)을 이해하는데 신체적인 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기 인식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형식을 체화하기에는 시간의 문제가 있었다. 변화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 삶 자체가 몸틀을 바로 전환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Bratton과 Landreth(2006)에 의하면 장기집단과 단기집단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기는 하나 집단에 따라 문화에 따라 훈련 세션의 시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상담이 종결된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한 삶을 실행해 보기 위한 훈련 세션으로 부모-자녀 놀이치료 훈련 과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유용하리라 생각되었다. 현재 아동상담 현실에서는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 추후 세션을 갖기는 하지만 특히 상담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어머니들에게 상담의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들 삶에 더욱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다음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단기 프로그램이지만 어머니들 내부에 혹은 외부에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이 하나의 체험으로써 그들 삶에 다른 체험들을 구성해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후의 어머니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 그들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이 단기에 이루어지는 점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의 삶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어머니들에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된다. 물론 몇몇 실증적 연구(백지은, 이정숙, 2009; 최영희, 2007a)에서는 어머니들의 이후의 삶을 추후 검사를 통해 측정하였지만 여전히 맥락적 관점에서 그들 삶의 역동성을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질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부모-자녀 놀이치료 참여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접적인 주체인 어머니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녀는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어머니들과 함께 놀이세션을 갖고 어머니들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의 또 다른 주체이다.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 과정에서 자녀의 삶을 따라가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 질 때 부모-자녀 놀이치료 현상을 이해하는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 놀이치료는 미국에서 시작된 치료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를 대상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왔다(Chau & Landreth, 1997; Edwards *et al.*, 2007; Glover & Landreth, 2000; Kidron, 2004; Lee & Landreth, 2003; Solis *et al.*, 2004). 특히 미국은 다문화 사회로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이 모델을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해 보는 것은 보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 중심적 접근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깨뜨리지 않는 한 문화와 토양에 맞는 모습으로 진화해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일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인 실행연구를 통해 우리의 모습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가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특별 놀이시간을 우선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문화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복잡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연구 기간 내내 꼬리를 물

었다. 이 논문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좀 더 심층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 내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을 참여 관찰하면서, 어머니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놀이시간을 우선하지 못하는 원인이 단지 그들 삶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심각한 문제를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유리될 수 없는 세계-내-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하나의 원인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놀이세션 보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일들에 시간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공적인 일이란 학업 수행과 관련된 활동들이었다. 예컨대, 학교 과제나 학원 과제로 그것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 놀이 시간이 간과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런 현상을 교육열로 단정 짓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연구자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와 같은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어렵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현상을 다시 보기를 희망해 본다.

**주제어 :** 부모-자녀 놀이치료, 질적 연구, 현상학적 방법

## 참 고 문 헌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재환, 부정민. (2006). 게임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 능력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 가족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7(6), 107-121.
- 백지은, 이정숙. (2009).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의 공감 및 문제 행동에 미치는 효과 -분리불안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30(4), 99-116.
- 서덕희. (2009). 문화와 교육의 개념의 실존성: '살아있는' 교육인류학을 위한 소고. **교육인류학연구**, 12(2), 1-44.
- 이근호. (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교육인류학 연구**, 10(2), 41-64.
- 이수정, 박찬국. (1999). **하이데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은하. (2006).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통한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증진과 자녀의 행동문제 감소에 관한 연구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어머니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놀이치료연구**, 10(1), 49-66.
- 이은하, 정계숙. (2006). 형제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 효과 연구. **아동학회지**, 27(1), 45-65.
- 이진경. (1997). **근대적 사·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 이진경. (2000).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서울: 소명출판.
- 이진경. (2002a). **노마디즘 1**. 서울: 휴머니스트.
- 이진경. (2002b). **노마디즘 2**. 서울: 휴머니스트.
- 장미경. (1998). 아동중심놀이치료 기법을 이용한 부모자녀관계증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미경, 손금옥, 김성은. (2009).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의 공감능력 및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의 변화과정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325-340.
- 장미경, 손금옥, 서지영. (2007). 아버지의 공감능력 증진과 유아기 자녀의 행동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놀이치료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2(3), 97-113.
- 정계숙, 이은하. (2005).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통한 유아의 가정 내 대인적 행동문제 감소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1(4), 111-138.
- 정계숙, 이은하. (2008).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통한 부적응 유아의 대인관계 증진 사례연구. **아동학회지**, 29(1), 63-86.
- 정계숙, 이은하, 고은경. (2006).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나타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반성과 그 의미. **아동학회지**, 27(6), 13-34.
- 조용환. (1997). **사회화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1-27.
- 최명선, 김광웅. (2005). 아동상담에서 부모와 치료자간



- 치료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6(3), 111-125.
- 최영희. (2006). 부모교육으로서의 부모놀이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7(5), 1-17.
- 최영희. (2007a). 공감과 수용에 초점을 둔 부모놀이치료의 추후효과. *아동학회지*, 28(3), 45-59.
- 최영희. (2007b). 부모놀이치료 효과 재검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4), 53-63.
- 한경애. (2007). 놀이의 달인, *호모루덴스*. 서울: 그린비.
- Andronico, M., & Blake, (1999). The application of filial therapy to young children with stuttering problem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 36(30), 337-381.
- Bavin-Hoffman, R., Jennings, G., & Landreth, G. L. (1996). Filial therapy : Parental perceptions of the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5(1), 45-58.
- Bollnow, O. F. (1971). *Padagogik in anthropogischer Sicht*. Tokyo: Tamagawa Univ. Press. 오인탁 옮김 (1982). *교육의 인간학*. 서울: 문음사.
- Bollnow, O. F. (1981). *Philosie der Erkenntnis*. Stuttgart: Kohlhammer. 백승균 옮김 (1993). *인식의 해석학*. 서울: 서광사.
- Bratton, S. (1993). Filial therapy with single par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 Bratton, S., & Landreth, G. (2006). *Child Parent Relationship Therapy(CPRT): 10 Session Filial Therapy Model*. 김양순 옮김 (2008). *놀이치료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 치료 10세션 부모-자녀 놀이치료 모델*. 서울: 학지사.
- Bratton, S., & Landreth, G., Kellam, T., & Blackard, S. (2006). *Child Parent Relationship Therapy (CPRT) Treatment Manual: A 10-Session Filial Therapy Model for Training Parent*. NY: Routledge.
- Chau, I., & Landreth, G. (1997). Filial therapy with chinese parents: Effects on parental empathic interaction, parental acceptance of child and parental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6(2), 75-92.
- Edwards, N., Ladner, J., & White, J., (2007). Perceived Effectiveness of Filial Therapy for a Jamaican Mother: A Qualitative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6(1), 36-53.
- Gadamer. H. (1990). *Wahrheit und Methode*. 이길우, 이선관, 임호일, 한동원 옮김 (2000). *진리와 방법*. 서울: 문학동네.
- Glover, G. J., & Landreth, G. L. (2000). Filial Therapy with Nativr Americans on the Flathead Reser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9(2), 57-88.
- Guerney, B. G. Jr. (1964). Filial therapy; Description and ration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8, 303-310.
- Jo, Y. H. (1989). Understanding the boundaries of make-belive: An ethnographic case study of pretend play among Korean children in U. S. A communit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Kale, A. L., & Landeth, G. L. (1999). Filial therapy with parents of children experiencing learning difficul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8), 35-56.
- Kidron, M. (2004). Filial Therapy with Israeli patents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2003).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 64(12), 4372.
- Lahti, S. L. (1993).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filial therapy process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1992).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 53(08), 2691.
- Lee, K. (2005). *A Traveller's Tale: The Experience of Study in a Foreig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B.
- Lee, M., & Landreth, G. L. (2003). Filial therapy with immigration Korean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2(2), 67-85.
- McGuire. D. K. & McGuire. D. E. (2001). *Linking parents to play therapy*. 김광웅, 강은주, 진화숙 옮김 (2008).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 Merleau-Ponty, M. (1945). *Phenomenology of perception*.  
 류의근 옮김 (2002).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Smith, N., & Landreth, G. L. (2003). Intensive filial therapy with child witnesses of domestic violence: A comparison with individual and sibling group.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2(1), 67-88.
- Solis, C. M., Meyers, J., & Varjas, K. M. (2004).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he process and impact of filial therapy with an African American par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3(2), 99-118.
- Spradley, J. P. (1980). *Participation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teen, R. L. (2005). Adapting filial therapy for families who have a child with a life-threatening illn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200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B, 65(08), 4306.
- Taylor, S. (2002). *The tending instinct: How nurturing is essential for who we are and how we live*. 임지원 옮김 (2008). **너와 나를 묶어 주는 힘 보살핌**. 서울: 사이언스 북스.
- Tew, K., Landreth, G. L., Joiner, K., & Solt, M. (2002). Filial therapy with parents of chronically il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1(1), 79-100.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sota: Univ. of Minnesota Press. 구동희, 심승희 옮김 (2005).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 van Manen (1994).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신경림, 안규남 옮김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
- Winek, J., Lambert-Shute, J., Johnson, L., Shaw, L., Krepps, J., & Wiley, K. (2003). Discovering the moments of moments of moment in Filial therapy: A single case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2(1), 89-104.
- Yuen, T., & Landreth, G., & Baggerly, J. (2002) Filial Therapy with immigrant Chinese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1(2), 63-90.

| 접수일 : 2010. 09. 01.  
 | 수정완료일 : 2010. 11. 29.  
 | 게재확정일 : 2011. 01. 05.